

“지역경제 침체 극복, 할 수 있는 모든 세정지원 하겠다”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사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자배·피자배 계층으로 나뉘었던 고대·중세, 자본주의와 함께 민주주의 시스템이 태동하고 정착된 근대·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업무 가운데 세금 징수만큼 어려운 일은 없었다. 일부물 제외한 상당수 부유층은 어떻게 해서든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고 했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산층·빈곤층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더더욱 부담이 크다. 국가의 흥망성쇠, 세계 역사의 변곡점마다 이 세금 문제가 배경이 되었다. 로마 멸망, 중국 명·청나라 멸망, 프랑스 혁명, 불세비키 혁명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 동·서양의 세금 징수 방식은 서로 달랐다. 중국, 우리나라 등은 왕이 지방에 파견한 중앙관리자가 세금을 징수했는데, 서양에서는 주로 국가 관리가 아닌 민간인 징세청부업자가 징세권을 넘기고(Tax Farming), 한 번에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둘 다 방식은 달랐지만 부작용은 비슷했다. 동양에서는 관리들이 자신의 몫을 착복하기 위해 가렴주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서양에서도 왕이 징수권을 넘길 때 청부업자들이 합법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들을 괴롭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군과 명신은 조세제도를 공격하고 명징하게 정비하고 집행했고, 폭군과 흑리는 가혹하게 세금을 거뒀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마천의 사기열전 제21편 ‘염파인상열전’에는 조사(趙奢)라는 관리가 등장한다. 춘



추전국시대 조나라 말기 염파, 인상여와 함께 명장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그는 사실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였다. 조나라의 실권자이자 왕족인 평원군의 집에서 세금 납부를 계속 거부하자 법에 따라 집사들을 사형시켰다. 뒤늦게 이를 안 평원군이 조사를 죽이려하자 그는 “귀한 공자의 집안이 세금을 안 내면 나라가 쇠약해져 망하게 되고, 결국 평원군이 누리고 있는 부유함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고 설득해 살아남았다. 이후 평원군의 추천으로 장군에 오른 그는 전장에서 여러 공을 세웠다. 아들 조괄에 대해 교주고슬(膠柱鼓瑟, 거문고 기둥을 풀로 붙여놓고 거문고를 타는 것), 지상병담(紙上兵

무료세무자문 등 납세자 위한 각종 서비스 잘 활용하면 좋아
세금 98% 이상 성실신고...국세청도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야

談, 종이 위에서 펼치는 용병술)이라며 박하게 평가하고 장군으로 나서지 말 것을 강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조괄은 나중에 조나라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 조사가 비록 아들이라도 흔들림 없이 냉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양의 징세청부업자 중 유명한 사람은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인 마태오와 프랑스의 화학자인 앙투안로랑 드 라부아지에가 있다. 마태오의 상징은 은색 돈자루, 펜과 종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밭오와 경멸의 대상인 징세청부업자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비난을 받자 예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찾아왔다”고 답하고 마태오를 받아들였다.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의 질량 보존의 법칙 확립, 원소와 화합물 구분, 산소 명명 등의 업적을 남긴 유명한 화학자였지만, 세금징수조합에서 일하며 부유해졌다. 1775년 3월부터 프랑스 정부 화약국장으로, 1785년 6월부터는 농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1785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이사로 선임되는 등 공직과 학계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프랑스혁명 이후 국가가 관장하는 징세기관이 도입되면서 세금징수조합이 해체되고, 공직에서 해임되는 등 위협을 받기 시작한 그는 1793년 11월 체포되어 1794년 5월 단두대에서 참수되었다. 당시 수확자인 조제프루이 라그랑주는 “이 머리를 베어 버리기에는 일순간으로 충분하지만, 프랑스에서 같은 두뇌를 만들려면 100년도 넘게 걸릴 것이다”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국가기관이 개개인의 부와 소득, 소비에 대해 조사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현대에 접어들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는 국세청, 관세는 관세청,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1966년 3월 당시 재무부 사세국에서 분리, 여러 차례 조직 개편 후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으로 자리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상속세·증여세 등을 과세·징수하는데,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으로, 국가 운영·국민 복리·약자 구제 등에 쓰일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2023년 국세청 세수는 335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5,000억 원이 감소했다. 소득세(115조8,000억 원), 법인세(80조4,000억 원), 부가가치세(73조8,000억 원) 순이다. 고액납부자 재산추적조사로 2조8,800억 원을 징수·확보하기도 했다.

박광종 청장이 이끌고 있는 광주지방국세청은 국세청 산하 7개 지방청 중 하나로, 광주·전남·전북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제 58대 청장으로 취임해 3개월여가 지났다. 광주 출신인 그는 살레시오고를 거쳐 세무대에 들어가 대학부터 무려 39년을 공직자로 지내고 있다. 본청에서 서기관 승진 후 광주세무서장, 북광주세무서장을 거쳐 다시 세종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앉았다. 최근 광주 시내 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경우는 박 청장이 처음으로, 오랜 본청·지방청 생활을 거쳐 서

기관, 부이사관에 이어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했기 때문이다 가능했다.

그는 자리를 떠난 뒤 퇴임 이후의 삶을 고민하겠다고 할 정도로 오로지 현재 업무와 조직에만 전력투구하고 있다. 박 청장에게 고단한 지역 국세 징수 책임자로서의 일상, 지역 경제에 대한 단상, 자신의 업무 철학 등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직 내 이력이 화려하다.

▲국세청, 서울청 등에서 주로 근무했다. 지난 2015년 6월 서기관 승진 후 광주에 내려와 광주세무서장, 북광주세무서장 등 두 번씩이나 일선세무서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징세과장을 거쳐 서울청 감사관·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조급 합들다는 부서에서 정말 일만 하면서 보냈다. 운이 많이 따라서 본청에서 부이사관 승진을 하고 서울청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을 해서 지난 2023년 8월 중부청 조사3국장에 갈 수 있었다. 이후 1년 만에 광주 발령을 받고 기쁘게 내려왔다.

-세무대를 나왔는데.

▲장남이어서 집안 형편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시골에서 상업과 농업에 종사하셨던 아버지가 공직을 동경했고,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학교에 들어가 적응도 잘했다. 국어, 국사 등 인문학을 좋아했고, 틈틈이 탁구도 치고 재미있게 보냈다.

-광주에 내려와 정말 열심히 헌장을 들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고용노동정책’...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

이성룡 광주고용노동청장 강연

“지역 경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역 기업 또는 개인 모두 최근 개정된 노동법이나 고용·노동정책 등 관련 정보들을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가 지난 13일 광주 시 서구 치평동 힐리데이인 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올해 마지막 조찬포럼인 ‘제 1671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광주고용청)이 초청받아 ‘알아두면 도움되는 고용노동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이 청장은 올해 해 광주고용청을 비롯한 고용노동부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최근 개정된 노동법과 각종 고용·노동정책 등에 대한 통계와 함께 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 청장은 광주고용청의 올해 성과로만 보면 고용시장은 지표상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고용률과 실업률 등의 통계지표가 전국 대비 긍정적인데다, 현장 노사관계 안정에 대한 지표인 ‘노사분규 건 수’가 올해 9건으로 전년 동기(44건) 대비 대폭 감소했고, ‘근로손실 일 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서다.

다만 광주·전남의 취업자 수 등은 3분기 기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 경제의 어려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청장의 설명



이다. 이어 “올해 고용노동부의 주요 추진 성과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등을 확대 시행할 수 있게된 만큼, 향후 임신·출산 등 업무의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광주고용청의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사업들

도 소개했다. 이 청장은 “타 지역은 인구 감소에도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아직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은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생산가능 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광주고용청은 고용지원금 사업, 수요예대 in광주, 기업도약 패키지 사업 등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미스매칭 해결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나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

광주신세계 ‘아이콘 마켓’

광주신세계가 연말연시 가족·지인 등을 위한 선물을 고민하는 고객을 위한 ‘아이콘 마켓’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9일까지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열리며, 천연석 주얼리와 순금액자 등 이색 품목들과 여성 의류·액세서리, 핸드백, 침구류 등을 선보인다. <사진>

우선 천연석 주얼리 브랜드 ‘스톤디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원석을 소재로 만든 액세서리를 선보이면서도, 과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평상시에도 매일 착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이번 행사기간 중 은점 귀걸이를 2만9000원에 ‘1+1’으로 판매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순금액자 장인이 만든 브랜드 ‘금수화’에서는 순금액자와 금박액자를 만날 수 있다.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순금액자는 가정의 안녕과 소원성취 등의 의미를 담아 연말연시에 선물로 인기가 많다.

추운 겨울철 아우터와 원피스 등도 마련했다. 모피 전문 브랜드 ‘지벨린’은 가죽의류와, 인조 무



스탕 아우터 등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인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광주신세계가 특별한 품목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아이콘 마켓을

준비했다”며 “천연석 주얼리와 순금 액자 등 차별화된 선물을 찾는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상의 혼란한 정국 속 지역경제 관심 촉구

정부·국회·지자체에 대책 요구

대표적인 지역 경제단체인 광주상공회의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역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국회·정부·지자체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5일 한상원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광주지역 경제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에 대한 차별적 추가 관세 도입,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경제적 악재 또한 가득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에서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미래성장동력 사업비’ 등 광주·전남 미래 핵심사업의 사업비가 감액되어 지역 주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광주상의는 “정부는 경제 정책의 안정성 유지를 통해 이미 수립된 정책과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충실히 수립해 우리 경제를 덮고 있는 불확실성을 견어내 주길 바란다”며 “민생경제를 포함한 기업 살리기, 경제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역 경제계도 광주 균형발전 이전 문제 등 지역경제 현안들이 우선순위에선 벗어나지 않도록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녹색에너지연, 재생에너지공영화 대토론회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 11일 목포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의 공공 확대를 주제로 산·관·민·학 등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 박형대·최미숙 전남도의원, 이순형 동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에너지 협동조합·신안군 개발이억

공유 사례, 태양광 공영화 및 주민 참여 사업 모델, 전남 재생에너지펀드 조성 방안 등을 주제로 각 전문가들이 발표했다. 이어 2부에서는 이순형 동신대 교수를 좌장으로 주민수용성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움직임, 발전소 사업추진 자금 지원 제도 마련 필요성, 커뮤니티 펀드 조성 방안,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등에 대한 열린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전국 첫 RISE 초광역 협력체계

전담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광주테크노파크가 지난 13일 전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김보협 광주RISE센터장, 손영근 전남 RISE센터장 등과 함께 광역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RISE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 간 업무협약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RISE 기본계획과 연계한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양 시도 대학간 연계·협력사업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국회 확보 공동 대응 등이 담겨있다.

양 시도 RISE센터는 향후 지역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며, 지역인

재를 육성하고 취·창업, 지역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로도복권 (제 115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8	9	18	35	39	45	25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1,570,620,309	17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19,690,668	226
3	5개 숫자일치					1,303,865	3,413
4	4개 숫자일치					50,000	166,846
5	3개 숫자일치					5,000	2,626,598